

다급한 민주 ‘潘 때리기’ … 느긋한 국민의당 “3지대로 오라”

대선구도 ‘빅뱅’ … 각 진영별 셈법은

민주, 潘 견제 속 文 구심력 약화 우려
국민의당, 安·千·孫 ‘빅텐트’ 가능성
친박, “앓던 이 빠져”… 추가 탈당 신경 촉각

새누리당이 사실상 분단 수순에 돌입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강력 시사하면서 조기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신당’과 반기문 총장이 결합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방안과 제3지대에서의 ‘반(反) 패권연대’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아권에서는 비박 신당과 반총장 대선 도전을 둘러싸고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박 신당과 반총장의 결합이 국민적, 시대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반기문 때리기’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21일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기문 총장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적이 주락한 상황에서 그나마 국격을 지킬 수 있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판에 기여하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반총장과 전광용의 단편소설 ‘꺼빼면 리’의 주인공과 꼭 닮았다”며 “주인공이 인국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친일,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는 친소, 미군정이 들어선 남한에서는 친미로, 얼굴을 바꿔가며 성공을 거듭해온 기회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비박 신당의 청당과 반기문 총장의 대선 도전은 조기 대선의 유동성을

높이면서 정치적 원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비주류 진영에서는 제3지대가 확장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주류 진영이 대권 레이스에서 앞서가는 모습이지만, 새 정당이 출현하고 국민의당이나 민주당내 개헌파가 여기에 호응할 경우 판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제3지대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목하고 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총장이 박근혜 리더십에 국민이 배신당했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한국 정치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반총장 이런 분들이 강한 경선을 해서 국민에게 후보를 선택할 기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반총장 측에) 전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3지대의 유동성 강화는 국민의당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비박 신당과 반기문 총장이 협심 보수를 매개로 결합하고 민주당이 불꽃 경선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출사표 던진 반기문 ‘보수대안’으로 뜰까

비박 탈당파와 연대 유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대권도전 의지를 피력하고 때마침 본격화한 새누리당의 분열양상과 맞물리면서 침체한 보수 세력의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에서 14시간의 시차를 넘어 이날 국내에 티전된 반총장의 대권 도전 일정은 ‘선정(善政)’으로 요약된다. 반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을 ‘선정의 결핍’이라고 규정했다.

반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몸 사리지 않을 것”이라거나 “한 몸 불살라서 노

력할 용의”라고 하는 등 국내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매우 적극적인 표현으로 내비쳤다.

내년 1월 중순 귀국하겠다고 밝힌 반총장은 ‘어떤 계통과도 시간·장소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그가 대권을 도전하기에 현실 정치가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정치세력과 함께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파와의 연대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오는 27일 탈당을 결행하겠다는 의원 35명에 더해 반총장의 귀국에 맞춰 추가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탈당파를 이끄는 김무성 전 대표의 개인 주장에도 반총장은 적합한 인물이다.

탈당파에 몸담은 정병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 교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역시 탈당을 결심한 권성동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반총장이) 대권에 뜻을 갖고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친박 중심의 당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특검, 삼성 지원금·국민연금 합병 승인 연결 고리찾기

압수수색 영장 협의에 삼성 ‘제3자 뇌물공여’ ‘배임’ 적시

200억 지원 대가성·배후 박근혜 대통령 관련 규명 숙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었던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이 ▲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측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간 대가 관계 ▲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제3자 뇌물공여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측에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과 맞닿아있다.

특검 수사는 그동안의 예상대로 삼성 지원액의 대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간 경영권 승계의 향

배가 걸린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작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다 한달 만인 8월 26일 최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넥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애초 6명의 승무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수해는 사실상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항후 수사는 삼성 지원금과 국민연금 합병 승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적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특검으로 넘겼다.

국민연금 임직원의 배임 혐의는 특검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격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자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949,000~
★초특가 12/28, 1/9★	
[유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498,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1,548,000~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1,149,000~
[관광]다낭/호이안/후에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용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용불포함사항 : 여관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플립 중식 포함)	

여행길의 즐거운 통번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 콘세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T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699,000~
[실속]타이페이/야류/화롄/지우펀	7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롄/지우펀	8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롄/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